

▶▶ 매일 INDEX



4면

내년 3월부터 발달장애인 농업활동 진행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 돕는다

# 전주매일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음 10월 9일) 제266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24일 군산시 신시교차로에서 열린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 새만금 동서도로 20.4km 개통 내부개발 본격화 '신호탄 쏘다'

### 국제공항 등 SOC·기업유치 촉진 마중물 역할 심포항~신항만, 56km→20km·60분→15분 단축

새만금 서쪽 신항만과 동쪽 새만금~전주고속도로를 잇는 내부 간선망인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하면서 새만금 내부개발 본격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개통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역사적인 동서도로의 개통 축하와 함께 새만금의 비약적 발전을 격려했다.

전북도는 24일 새만금 동서도로 신시도~심포항 구간 20.4km(폭 20.0m, 왕복 4차로) 구간에 대한 개통식을 열고 오늘 낮 12시부터 차량 통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정세균 국

무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을 개최했다.

**<관련기사6면>**

새만금 동서도로의 개통은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SOC시설과 함께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기고 기업유치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서쪽의 새만금 신항만과 동쪽의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연결해 앞으로 새만금과 내륙 지역 간 물적·인적 자원의 수송에 중

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남북도로와 함께 새만금 내부 십자형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철도, 산업단지, 수변도시 등 새만금 내 주요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게 된다.

또한 새만금 내 모든 지역이 어디서든 20분 내에 닿을 수 있게 돼 울해 말 착공을 앞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등 내부개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으로 전주(전북도청)에서~신시도(33센터)까지 운행거리가 종전 78km에서 60km로 12km가 단축돼 이용자의 편의와 물류비용의 절감이 기대된다.

특히 심포항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는 종전 56km로 60분이 걸렸지만, 이제는 20km로 단축돼 15분에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동서도로 개통에 따라 새만금 내부개발 시대가 눈앞에 성큼 다가와 감개무량함을 느낀다"며 "새만금 물류와 교통의 중심축 역할로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투자유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해 새만금의 글로벌 경제중심지 도약에 초석이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이어 "오늘의 동서도로 개통은 예전 물막이공사 완공 때처럼 새만금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자 길로 기억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준공시설물을 이관할 계획이며, 앞서 국토교통부는 동서도로를 국도 12호선으로 지정고시(11월 13일)한 바 있다.

유호상기자

## SK, 새만금에 2조원대 투자

### 데이터센터·창업클러스터 구축 협약

새만금에 아시아 데이터센터 구축을 목표로 하는 SK컨소시엄의 2조원 규모 투자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그린뉴딜 중심지를 향한 전북도의 행보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전북도와 새만금청, 군산시는 24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SK 컨소시엄과 데이터센터 유치 및 창업클러스터 구축을 골자로 하는 2조원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관련기사2면·6면>**

협약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SK 최태원 회장, 신영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새만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송하진 전북도지사,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김임준 군산시장,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도 협약서 서명을 위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SK컨소시엄은 1조9700억원을 투자해 데이터센터 4개 동을 조성하고, 2029년까지 총 16개 동으로 확장 조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1,000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창업클러스터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SK컨소시엄은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RE100 활용) 산단 5공구에 세계 최고 수준의 3H(고화질성, 고성능, 고안정성) 시스템을 갖춘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2029년까지 구축하고, 관련 투자를 유치해 아시아 데이터센터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그동안 새만금에 첨단기업 유치의 장애요소로 지적되어 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시설 부족문제의 개선을 위해 해저케이블 및 광통신망 구축도 추진된다.

전북도는 향후 구축 예정인 데이터센터를 통해 장기적으로 새만금에 데이터센터 중심 IT특구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SK컨소시엄은 산단 2공구에 공동체(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복합도서관을 기반으로, 융합형 생산공간 및 지원공간 등을 구성해 총 3만3천㎡의 창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사업기간(20년) 동안 누적 300여개 기업을 유치 및 육성

할 계획이다. SK의 이번 투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자동차철수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우선, 창업 클러스터 및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300여개의 기업유치와 더불어 2천여 명의 누적 고용창출이 기대되며, 향후 20년간 약 8조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SK컨소시엄은 "향후 첨단 분야의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고, 10년 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기업)을 1개 이상 탄생시키겠다"는 목표이다.

도는 이번 SK컨소시엄 투자에 만족하지 않고 주요사업과 연계된 SK 계열사 유치를 통해 새만금을 SK의 전진기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11월 SK 최태원 회장은 계열사 중 8개 기업의 RE100 가입을 선언했고, SKES, SK에너지, SK가스 등 가입 대상이 아닌 관계사들은 자체적으로 RE100에

준하는 목표를 세워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RE100단지를 포함한 그린뉴딜정책을 추진하는 새만금은 SK 계열사에게 RE100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이다.

또한, 배터리 셀과 모듈을 생산 중인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셀의 핵심부품인 동박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SKC는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북도에 꼭 필요한 기업이다.

여기에는 도는 SK머티리얼즈의 반도체 소재 산업과 SK바이오팜의 바이오 산업은 전북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SK계열사의 새만금 유치를 위해 도는 지난 10월 중 이미 SK 임원을 만나 새만금에 투자자를 권유한 바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다양한 융합형 기업들을 육성할 창업클러스터와 대규모 데이터센터 조성은 새만금을 국내외 첨단산업의 아시아 허브로 만들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현했다.

유호상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